

# 몽골에 제도운영 노하우 전수

### 국민연금공단, 사회보험청 대상 제도연수·ICT 컨설팅 실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사회보험청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 및 ICT 기술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

수하는 제도연수 및 ICT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사업의 일환으로 '몽

골 연금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제도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는 제도연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사회보험청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 및 ICT 기술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제도연수 및 ICT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몽골 사회보험청 실무진 등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제도, 기금, 고객센터, ICT 등 총 4개 분야로 5일간 실시됐다.

아울러 공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점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 국제연수를 2014년부터 매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보다 심층적으로 제도연수가 필요한 국가는 공단에 방문하여 연수를 받거나, 공단이 해당 국가 현지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14개국 130명이 제도연수를 받았다.

현지 연수에 참가한 김대순 정보화본부장은 "우리 공단은 세계 최단 기간인 11년 만에 연금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정착시킨 경험과 노하우, 세계 최고의 선진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연수 및 ICT 컨설팅이 연금제도 정착을 바라고 있는 몽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연금을 확대·정착시키는 데 일본은 20년, 미국은 33년, 독일은 35년이 걸렸다. /김윤상 기자

## 신중년 노후준비 아카데미

### 국민연금공단, 전주시민 대상 16일부터 '작가탄생 프로젝트 in 전주' 2기 실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오는 16일부터 매주 두 번, 한 달 동안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공단 본부 등에서 신중년 노후준비 아카데미 '작가탄생 프로젝트 in 전주' 2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공단 본부에서 처음 실시된 '작가탄생 프로젝트 in 전주' 1기에서는 44명이 참여해 27명이 책쓰기 실천과제를 완료하고 지난 8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다. 1기 교육 참여자들의 만족도(96.1점)는 매우 높았으며, 이번 2기는 전주 시민들의 지속적인 작가탄생프로젝트 운영 요청과 신중년 노후준비 아카데미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게 됐다.

'작가탄생 프로젝트 in 전주'는 일회성 교육이 아닌 연속강좌로 글

쓰기기술 학습보다는 자신만의 콘텐츠를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둔다. 한 달 동안 9회 차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공단 전문강사의 강의와 선배특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단 노후준비 전문상담사의 노후준비 4대영역(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을 아우르는 개인별 맞춤 상담도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 내영희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노후복지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공단 본부 노후준비 지원실(전화: 063-713-592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잡코리아와 '중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나선다

### 중기중앙회, 청년 스마트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잡코리아(유)(대표이사 윤병준)와 중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청년 스마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대내외 경제 어려움 속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필요성을 공감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스마트 일자리 찾기 및 알리기 ▲구인기업-구직자 간 매칭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협업(구인기업 Feedback 및 구직자 경력코칭 시스템 구축 등)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세미나, 의견조사 실시 등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낮은 인지도가 중소기업 인력난의 큰 원

인이므로, 스마트한 중소기업 일자리 알리기에 잡코리아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앙회는 구인중기-청년구직자 매칭고도화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잡코리아와 함께 실질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준 잡코리아(유) 대표이사는 "청년 스마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업을 통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 기본·특화교육 진행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산진흥원(이하, 경진원)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 간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신규로 근무하게 된 청년혁신가 39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기본교육 및 특화교육'을 진행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전라북도도와 경진원에서 도내 청년들의 실업 해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200명의 도내 청년들을 취업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청년혁신가 기본교육은 실무 위한 직장내 예절교육, 보고서작성 방법 등 기초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초이론과 조별 스터디, 사회적경제 기업(마을기업) 방문과 체험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청년혁신가는 "임사하게 되는 기업의 유형과 특성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다시 도전하는 힘을 가진 사람 찾기

### 전북도 도시재생 뉴딜 전문가 교육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후원하고 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한 '2019년 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 전문가 교육'이 지난 2일 종료됐다.

4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광역단위의 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한 후 시작한 첫 사업으로 12개 시·군의 기초·현장센터의 직원 및 도시재생 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다.

교육 참가자들은 뉴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티 디자인과 주민참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군산·부산·홍성 등의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었다. 또한 고민 풀어 놓기, 경험 공유와 진짜 문제에 대한 해결점 모색 등의 워크숍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큰 성과도 얻었다. /김윤상 기자

## 전북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개최

### 기업 소개·애로 건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난 2일 전북중기청장을 비롯한 28개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전북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원협의회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전북중기청에서 한자리에 모여 참석자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추진계획 등 지원정책과 현안·이슈를 공유하고, 현장애로 등 해소를 합동 모색하며, 협업과제 발굴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역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소통기구이다.

협의회 종료 후에는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지원기관과 협·단체에 E-mail 등으로 송부해 각 협·단체 회의사(2100여개사) 등에 전파되도록 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소통을 극대화하고 있다.

먼저 기업소개 자리에서는 치약코팅 일회용 칫솔 제조업체인 '에스씨유' (대표 김건우)에 이어, OEM 유아복제조·포장 제조업체인 '현대패럴' (대표 박정희)에서 기업 소개와 애로 건의가 있었다.

이어서 전북중기청은 소관팀별 수

출·인력·공공구매, 창업·벤처·R&D,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에 대한 9월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10월 계획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원기관과 협·단체 기관장들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상호간의 폭넓은 이해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성을 갖고 합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유익한 소통의 자리였다고 전했다.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우리 전북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가고 있으며, 오늘 우리의 스किन이 정책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포용적 인재개발 교육 앞장

### 농진청, 전주지역아동센터 학생 등 대상 원예치료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4회에 걸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전주은화학교(60명)와 전주지역아동센터 학생(120명)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과 드론 체험 교육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혁신도시 기반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정부역신을 실천하고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원예치료와 농업용 드론 체험 프로그램을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원예치료 프로그램 교육은 전주은화 학교에 방문하여 2회에 걸쳐 전공반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내안에 지구'라는 주제로 테라리움 만들기와 공기정화식물 심기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드론 체험 교육을 위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로 전주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초청하여 드론 시뮬레이터실습과 드론 실물 기초비행 등을 실습하며 4차산업 시대의 농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김부성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포용적인 인재개발을 실천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